

# KIA 후반기 도약 양·안이 이끈다

〈현종〉 〈치홍〉



양현종

전반기 투-타의 MVP가 '호랑이 구단'의 후반기 도약을 이끈다.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전반기를 보낸 KIA 타이거즈는 반전의 후반기를 꿈꾸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에이스 양현종과 4번 타자로 변신한 안치홍이 있다.

'우승 멤버'들의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도 두 사람은 전반기 투-타의 중심으로 활약했다.

양현종은 전반기 3.48의 평균자책점과 9승 7패를 기록했다. 106개의 탈삼진도 뽑으며 KBO리그 역대 14번째 5년 연속 100탈삼진 주인공이 됐다. 또 지난 3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는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12개로 늘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양현종의 이닝이 눈에 띈다. 양현종은 올 시즌 19경기 나와 팀에서 가장 많은 128.2이닝을 소화해냈다.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양현종의 위기관리 능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양현종은 후반기 첫 등판이었던 17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3회까지 8개의 안타를 허용하는 등 3실점을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 1회 17개의 투구수를 기록한 뒤 2회에는 21개의 공을 던지는 등 고전했지만 4회부터 앞선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현종이 경기를 지배했다.

양현종은 이날 100개의 공으로 7회를 마무리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4회부터 7회까지 단 하나의 피안타만 허용했고, 탈삼진은 5개를 뽑아냈다.

조반 난조를 딛고 에이시다운 집중력과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뒷심싸움의 발판을 마련해줬다.

양현종이 힘을 내자 타자들도 베나디나의 투런포와

## 양현종

전반기 평균자책점 3.48·9승 7패  
19경기 128.2이닝...최다 이닝 소화  
후반기 첫 승 기여...뒷심싸움 발판

## 안치홍

전반기 MVP...부상 없이 꾸준  
16개 홈런·70타점 팀내 독보적 1위  
4번타자 변신...팀 해결사로 나서

이명기의 3루타에 이은 폭투로 3-3동점을 만들었다.

KIA는 양현종이 물러난 뒤 8회말 3점을 추가하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승리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양현종은 사실상의 승리투수와 같은 활약을 해냈다.

이날 3회 김기태 감독이 홈 태그 상황에 대한 비디오 감독 결과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하는 등 악재도 있었지만 양현종은 "이런 경기는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추가 실점을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던졌다"면서 팀을 대표하는 투수의 책임감을 말하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아쉽게 10승에는 실패했지만 양현종은 팀 연패 탈출에 기여하면서 후반기를 순조롭게 출발했다.

전반기 타석의 MVP였던 안치홍도 4번 타자로 나

서 멀티히트로 후반기를 열었다. 17일 두 타석에서 삼진과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던 안치홍은 2-3으로 뒤진 6회말 세 번째 타석에서 중전안타를 기록한 뒤 3-3으로 맞선 8회 멀티히트와 함께 팀 승리를 확정하는 결승 득점을 기록했다.

1사에서 우중간을 가르며 2루로 진투한 안치홍은 베나디나의 고의 사구로 만들어진 1사 1·2루에서 나온 김주찬의 안타로 홈까지 들어왔다. 4·3 역전에 성공한 KIA는 최원준의 밀어내기 볼넷과 유민상의 희생플라이로 6-3으로 승리했다.

안치홍은 지난 4월 사구에 맞아 잠시 재활군도 됐지만 올 시즌 가장 꾸준한 모습으로 타석에 서고 있다. 한때 4할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위 타자 자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18일 경기 전까지 베나디나와 함께 가장 많은 16개의 홈런을 기록한 안치홍은 70타점으로 팀 내 독보적인 1위이자 전체 7위를 기록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

후반기 첫 경기에서 최형우를 대신해 4번 타자로 나선 안치홍은 18일에도 같은 자리에 섰다.

안치홍은 "전반기 잘 보냈지만 막바지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다. 후반기에도 꾸준하게 역할을 하는 게 목표다. 한번 분위기를 잡으면 팀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꾸준하게 후반기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



## 추, 올스타전도 '출루본능'

한국선수 첫 안타·득점... "기록 신경 안쓸 것"

빅리그 데뷔 14년 만에 '꿈의 무대'를 밟은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코리안 메이저리그 역사를 새로 쓰며 감격에 젖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을 마친 추신수는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모이는 곳이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다. 내 생애 꼭 한 번은 서고 싶었던 무대다"라고 말했다.

추신수는 꼭 서고 싶었던 무대에서, 재능도 뽐냈다.

18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2018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2-2로 맞선 8회초 아메리칸리그(AL) 올스타 대타로 나서서 좌전 안타를 쳤다.

올스타전 데뷔 타석에서 추신수는 밀워키 브루어스 좌완 조시 해더의 시속 156km 직구를 밀어쳐 안타를 생산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나온 한국 선수의 첫 안타다.

추신수는 진 세구라(시애틀 매리너스)의 좌중월 3점포로 홈을 밟아 득점도 했다. 당연히 한국 선수의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첫 득점이다.

한국인 타자 중 최초로 올스타 무대를 밟은 추신수는 2타수 1안타 1득점으로 활약했다.

기본 종계 축제를 즐긴 추신수는 이제 정규시즌 후반기 준비한다.

51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간 추신수는 "이제 출루 기록에는 얽매이지 않겠다"며 "건강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많은 경기에 뛰고 싶다. 이게 내 후반기 목표"라고 밝혔다.

텍사스가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로 처지면서, 추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월드컵 예상 밖 선전' 19위

美 스포츠 매체... 1위 크로아티아·2위 일본

미국 매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2018 러시아월드컵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 팀 순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전체 32개 팀 중 19위로 평가했다.

SI는 18일(한국시간) "한국은 조별리그 탈락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세계 최고) 독일을 2-0으로 꺾는 이변을 만들었다. 다만 스웨덴과 멕시코전에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선보였다"라고 설명했다.

1위 자리엔 준우승을 차지한 크로아티아가 이름을 올렸다. 이 매체는 "크로아티아는 월드컵 유럽지역예선을 플레이오프 끝에 겨우 통과한 팀"이라며 "그러나 본선 무대에서 매 경기 기적 같은 모습을 펼쳐며 결승까지 진출했다"라고 소개했다.

아시아 팀으로는 유일하게 16강에 진출한 일본이 2위에 올랐다. 3위는 무적함대 스페인을 꺾고 8강에 진출한 개최국 러시아가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과 같은 조에 속했던 스웨덴은 4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조현우 추천 받은 리버풀 '판 눈'

브라질 국대 골키퍼 알리송 영입에 922억원 제안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이 브라질 국가대표 골키퍼 알리송 베크레(26·AS로마)를 영입하기 위해 역대 골키퍼 최고 몸값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 등 현지 매체들은 18일 "리버풀이 6200만 파운드(약922억원)의 이적료를 AS로마에 제안했다"라며 "다만 AS로마는 6600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전까지 골키퍼 최고 몸값은 잔루이지 부폰(파리 생제르맹)이 2001년 이탈리아 세리에A 파르마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할 때 기록한 5300만 유로(약700억원)다.

리버풀이 골키퍼 영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에서 현 주전 골키퍼 로리스 카리우스의 치명적인 실수로 패했기 때문이다.

친분이 있는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의 예전 안테데센 감독은 클로프 감독에게 한국 대표팀 조현우(대구)를 추천하기도 했다.

일단 리버풀은 알리송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 한기주 "대구 더위, 너희 큰일 났다"

## 양현종 "이제 세아이의 아빠입니다"

### 덕아웃 T 특특

▲이제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 17일 팀 5연패 탈출을 이끌었던 양현종이 그라운드 인터뷰에서 '깜짝 발표'를 했다. 1남 1녀의 아버지인 양현종은 이날 "두 아이의 아빠가 아니라 이제 세 아이의 아빠가 된다"며 셋째 아이 소식을 전했다. 올 시즌이 끝나고 겨울 셋째 아이를 만나게 된 양현종은 태평을 춘복으로 했다. 양현종은 "봄춘 복복, 춘복(春福)"이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더라 = KIA는 선발로 역할을 했던 팻틴을 불펜으로 돌리며 후반기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팻틴이 선발전에서 빠지면서 20일 kt와의 홈경기에 임시 선발이 투입된다. 최재진과의 자리에서 "하기 싫은 사람 시키면 문제인데, (선발)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더라"며 웃은 김기태 감독은 "내일 확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고 언급했다.

▲오랜만에 TV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 김기태 감독이 TV로 팀의 연패 탈출을 지켜봤다. 삼성과의 홈경기가 열린 17일 김 감독은 3회 비디오 감독 결과에 대해 항의하다 퇴장 됐다. 0-2로 뒤진 3회초 2사 2루에서 이지영의 안타 때 좌익수 이명기가 홈으로 송구를 했다. 공이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포수 김민식이 주자 김현군을 태그하지 못했다. 구심이 셰이프를 선안했지만, 김현군이 태그를 피하느라 홈 플레이를 밟

지 못했다. 뒤늦게 김현군이 홈플레이트로 몸을 날렸고 김민식도 태그를 시도했지만 주자의 손이 빨랐다.

KIA의 요청으로 홈 태그 상황에 대한 비디오 감독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원상대로 셰이프. 이에 김 감독이 심판진에 항의하면서 퇴장 됐다.

KBO리그 규정 28초 11항 3호에는 "비디오 감독이 실시되면 더 이상 심판팀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심판은 선수단 및 관계자에게 퇴장을 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김 감독은 퇴장 뒤 홈플레이트 뒤 통로 쪽에서 경기를 지켜보다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결국 감독실 TV로 경기를 지켜본 김 감독은 "경기를 보고 싶었는데, 내 잘못이다"며 "오랜만에 TV로 보니까 답답했다"고 언급했다.

▲안 나오시면 안 되나요? = 임기영에게는 어려운 선배 김상수다. 19일 삼성전 선발로 예정된 임기영은 18일 훈련이 끝난 뒤 삼성 김상수와 그라운드에서 만났다. 임기영은 김상수의 손을 꼭 잡은 뒤 "(내일) 안 나오시면 안 되나요? 제가 경북고 선배님들에게는 약해서"라며 웃음을 터트렸다. 임기영은 "이원석 선배도 손이 불편한데 괜히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쉬시면 좋겠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이원석과 임기영은 상무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기 사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임기영은 "나만 잘하면 된다.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너희 큰일 났다 = 파란 유니폼을 입고 친정 나들

이에 나선 삼성 투수 한기주. 18일 훈련 시간 KIA 덕아웃을 찾아 임기영과 대화를 나누던 한기주가 다음 주말 선발 로테이션을 물었다. 그러더니 "(양)현종이가 주말에 로테이션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너희 큰일 났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유는 "정말 더위. 37도까지 올라가"였다. 한기주는 "대구는 정말 덩다"고 웃으며 훈련을 하러 외야로 향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치홍